

기획

■ 특별 인터뷰

서울평화상 받은 '엘 시스템아' 창시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

“음악은 세상을 바꾸는 힘, 아름다운 혁명입니다”

대담=박진현 선임기자

대낮에도 경단끼리의 충격전이 벌어지는 곳. 그래서 오후 6시만 되면 불끄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도시. 자고 일어나면 하나 더 늘어난 교실의 빈자리를 보는 게 일상인 나라.

하지만 이곳에도 희망이 찾아왔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종이 아닌 악기를 들고 마약 대신 음악에 빠졌다. 경단이나 소년원의 일원이었던 아이들은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됐다.

기적의 중심에는 오케스트라로 되살린 음악프로젝트가 있었다. 바로 '엘 시스템아'(El Sistema).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71·

총 대신 악기든 아이들 '기적의 하모니'로 감동

베네수엘라)박사가 창안한 '엘 시스템아'는 가난과 폭력으로 죽어가던 베네수엘라를 음악으로 되살려낸 아름다운 혁명이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7일 제10회 서울 평화상을 수상한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를 한·베네수엘라 친선협회(회장 남평오) 주최로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환영 오찬에서 단독인터뷰했다.



'엘 시스템아'는

베네수엘라 유소년 오케스트라...120만명 무료 음악교육

지난 1975년 작곡가이자 경제학자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거리의 아이들을 음악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창안한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시스템이다. 정식명칭은 베네수엘라 국립 청소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허름한 창고에서 11명의 아이들에게 악기를 나눠준 것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120만 명의 어린이들이 무료 음악교육 혜택을 입었다. 단원 가운데

80%가 빈민가 출신으로 현재 27만 명의 어린이들이 200여개가 넘는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중이다.

이곳 출신으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상임지휘자인 구스타보 두마렐(27)과 베를린 필 하모니의 더블베이스 연주자 에디슨 루이스가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25개국에서 엘 시스템아를 모델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다.

-먼저 서울평화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말씀해주시다면.

▲개인적인 영광일 뿐 아니라 베네수엘라를 대표해 큰 상을 받게 돼 기쁩니다. 베네수엘라의 청소년들을 음악으로 교육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엘 시스템아의 정신을 높게 평가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어린이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음악을 배울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올해 박사님을 모델로 한 영화 '기적의 오케스트라'와 '엘시스템아, 꿈을 연주하다'가 출간되는 등 엘 시스템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엘 시스템아를 통해 음악이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와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가난과 범죄, 마약과 같은 사회문제는 많은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음악을 통해 서로 좀 더 마음을 연다면 전쟁과 폭력 대신 평화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빈곤을 야기시키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음악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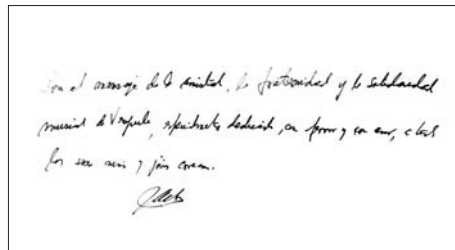
▲물론입니다. 음악은 인간의 정신을 정화시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이 어린이들의 영혼을 되살리고 기쁨과 희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비행청소년들도 음악을 접하게 되면 삶의 목표를 갖게 되고 폭력과 범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납니다. 어린이들에게 음악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엘 시스템아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을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독주가 아닌 협주(協奏)를 가르치는 것은 음악을 통해 단결과 협동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질서와 배려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일종의 '사회화'의 무대를 제공합니다. 엘 시스템아의 아이디어를 창안하게 된 것도 작곡가로서 이런 오케스트라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엘 시스템아의 모토가 '연주하라, 그리고 싸워라'(Play and Fight)'입니다. 무엇과, 혹은 누구와 싸우자는 것인가?

▲'음악의 힘'을 믿지 못하는 자신과 '음악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처음 엘 시스템아를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한 음악레슨은 여러명이 한꺼번에 배우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광주일보 독자에게 보낸 메시지. 음악을 통해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청소년들이 우정을 가꾸어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는 게 아니라 1대1로 가르치는 게 맞다며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회개혁 없이 어떻게 한낱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불신을 깨뜨리는 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엘 시스템아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한국서도 좋은 결실 가능

정부·기업 지원 뒤따라야

▲원하는 아이들은 가난하건 부자이건, 소질이 있건 없건 모두 받아들인 '열린 문'입니다. 또한 음악교육을 통해 사회를 통합시키고자 했던 베네수엘라 정부의 진폭적인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간 1억불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현재 정부에서 약 8천만불을 엘 시스템아 재단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엘 시스템아를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국은 (베네수엘라에 비해)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우수한 교사가 많아 베네수엘라 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나 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뒤따른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내년쯤에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청소년 100명씩으로 구성된 200명의 오케스트라를 구성, 엘 시스템아 출신인 구스타보 두마렐에게 지휘를 맡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가 오케스트라를 통해 더욱 가까운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jh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는

경제학 공부하다 빈민층 음악교육 앞장

1939년 베네수엘라의 발레라에서 태어난 아브레우 박사는 교향악 밴드 감독이었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음악을 접했다. 1957년 카라카스에 있는 호세 알헬 라마스 고급음악학교에서 작곡, 피아노, 오르간 등을 배우며 음악가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와 경제적 안정 등을 고민한 끝에 카롤리나 안드레스 베요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재학 당시 빈민층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믿음과 행복'이란 단체에서 활동한 것이 음악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전환점이 됐다. 졸업 후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등에서 일했으며 문화부 장관과 국가문화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0년 최대이슈! 최고관광지! 제주도 관광열차 여행

똑같은 제주도는 싫다! 아직도 1년전 일정으로 가십니까? 올가을부터는 新제주관광 명소만 골라 탐방하는 관광열차 여행으로 다녀오세요! 한라산자락 20만평의 생태수에 길이 5km의 관광열차 열차를 운행하며, 한번에 290명을 태운 관광열차 5대가 20분간격, 1시간씩 운행하며, 인공생태습지와 호수 낚시할 생태숲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2명이상 매일 출발!! 2010년 12월 31일 까지

“비하라고 갈 필요 있나요?” 왕복항공 제주도 3박4일 여행 특가

출발일 ● 11월: 1일, 9일, 15일, 16일, 22일, 29일 ● 12월: 6일, 13일, 20일

상품 1 올레길 + 관광열차 + 新제주 관광명소 탐방 [왕복항공] 3박4일 179,000원~

상품 2 관광열차 + 마라도관광 + 우도 유람선 [왕복항공] 3박4일 199,000원~

- 공통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일반호텔(4~6인실), 관광차량, 식사 일정에 관광요금, 여행자보험 - 공통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1인 10,000원), 선택관광, 유가할증료(13,200원) ※ 관광열차 2인실 이용시 30,000추가(1인)

왕복항공 제주도 2박3일 특급 롯데호텔 특가!

출발일 11월 7일, 11월 21일 (단2회)

상품 1 올레길 + 관광열차 + 新제주 관광명소 탐방 [왕복항공] 2박3일 359,000원~

상품 2 렌트카 롯데호텔 자유여행 (2인 출발기준) [왕복항공] 2박3일 399,000원~

★ 상품특전 : 롯데호텔 상품권 30,000원/워터월드 자유이용권

- 공통 포함 사항 : 왕복항공료, 롯데호텔(2인실), 호텔조식, 관광차량/NF소나타(렌트) 관광요금, 여행자 보험 - 공통불포함사항 : 기사/가이드(1인 10,000원), 선택관광, 유가할증료(13,200원)

● 365일 제주도 항공권 확보 / 목포, 장흥선박좌석 보유 ● 제주도 전지역 리조트 / 호텔 호남총판 대리점 ● 제주도 전지역 골프장 호남 총판 대리점 ● 2박3일 패키지, 단체여행, 렌트카 자유여행, 관광지 할인쿠폰 판매 가능

협찬 | 아시아나항공 KOREAN AIR

예약센터 투어클럽 & 스피드골프 ☎ 062-382-8201